



# 연구와 달리기

글\_ 정성훈 · Stanford University, Stanford Linear Accelerator Center, Research Associate



한강이 내 앞에 펼쳐졌던 그 날을 잊을 수 없다. 고등과학원에 처음 도착해서 근처의 정릉천을 따라 꾸준히 달리기 시작했다. 정릉천은 아주 멋진 곳이었었는데, 컨디션이 좋으면 청계천을 따라 서울 도심까지, 좀 더 힘을 내면 중랑천을 지나 한강에 다다를 수 있었다. 거의 무한한 공간의 시작점이자,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--조금씩 먼 곳을 향해 무한히 도전할 수 있는--곳이었다. 마침내는 한강까지 뛰기로 했던 것이다. 한 시간 넘게 달려, 굵이굵이 흐르던 천이 드넓은 한강으로 펼쳐졌을 때의 풍경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탁 트인다. '이 맛에 달리는 거지!'

처음에 운동 삼아 시작했던 달리기는, 지난 3년간 내 연구의 중요한--학자가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해 생각하게 해준--조력자였다. 연구와 달리기는 비슷한 면이 많았고,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. 연구는 매너리즘에 빠지면서도 신남과 지루함, 기대와 실망, 혹은 기쁨과 허무함이 찾아왔다. 그럴 때면, 연구를 왜 하는 것일까? 어떤 마음가짐과 사명감을 가져야 할까? 교수님들은 해답을 찾은 것일까? 멋진 논문이라고 생각했지만, 이번에도 학회장에서 돌아오는 건 칭찬보다는 무관심에 가까운 작은 질문들. 마찬가지로, 늘지 않는 달리기 실력, 익숙한 코스 풍경, 역시나 찾아오는 체력의 한계에 금방 지치기 일쑤였고, 서너 달을 열심히 뛰면 어김없이 몇 달은 달리기와 답을 쌓아야 했다. 힘들게 왜 달리는 것일까?

한강이 눈앞에 펼쳐졌던 그 날, 연구도 이래서 하는 것이리라 생각하게 되었다. 되돌아보면 언제나 목표는 한 걸음 더 먼 곳이었고, 그것을 달성했을 때의 성취감은 나를 그보다 더 먼 곳으로 이끌었다. 3년 전 시카고대학 연구원 시절, 파랗고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밀레니엄 파크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부러워 나도 달리기를 시작했었다. 4만 명이 참가하는 10km 대회를 목표로 연습했지만, 너무도 힘들었다. 평생을 달리기와 답을 쌓고 산 나에게서는 겨우 20분 달리기도 힘들었다. 대회참가를 마지막으로 다시는 달리지 않으리라 생각했다. 그러나 대회 날, 수만 명의 응원을 받으며 달리고 결승점을 뛰어들어오는 것은 환상적인 경험이었다. 마치 내가 올림픽 선수라도 되는 것처럼... 그 이후, 나는 오히려 달리기에 폭 빠져, 조금씩 더 먼 곳을 달려왔다. 연구도 마찬가지로 지일까. 어떤 목적과 사명감에서라기보다는 조금씩 더 큰 배움을 지향하며 자연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. 누군가는 논문을 쓰기 시작하면 중독된다고 했고, 다른 누군가는 그 과정에서 자연을 하나라도 배울 수 있다면 충분히 좋다고 했다.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물리학자로서 충분히 훌륭하고 즐거울지도 모르겠다. 달릴 수 있어 더 배울 수 있었다. 달리기와 연구의 가장 큰 공통점은 차근 차근 꿈을 넓혀가는 것 아닐까. 앞으로 SLAC에서, 나아가 어디에서 어떤 큰 꿈을 품든, 그리고 한강에 견줄만한 어딘가를 향해 달리든, 고등과학원에서의 경험과 배움은 큰 자산이 될 것이다.